

溫泉觀光地の 利用動機에 關한 研究

高東完* · 李震熙* · 金裕逸**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 **成均館大學校 造景學科

An Empirical Study on Visitors' Motivation for Hot Spring Resorts

Ko, Dong-Wan* · Lee, Jin-Hee* · Kim, Yoo-Il**

*Graduate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Leisure motivation i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study of leisure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isitors' motivations for hot spring resort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survey in three hot spring resorts in 1994: Suanbo, Paikam, and Chuksa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eight motivation factors extracted by factor analysis such as; 1) 'intellectual needs', 2) 'escaping everyday life', 3) 'closing nature', 4) 'recognition or status', 5) 'interaction with others', 6) 'health', 7) 'family vacation', 8) 'hot spring bathing'.

The three resorts showed significant deferences in the motivation of visitors. Visitors of Suanbo have high motivation for 'intellectual needs', 'interaction with others', and 'health', and visitors of Chuksan for 'closing nature', 'family vacation', and 'hot spring bathing'.

This study has proved first, psychological(pushing)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an pulling factors of resorts, second, in pulling factors, natural sceneries were more important than medicinal properties of the hot springs. And this study found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or predicting visitors' demand in hot spring resorts.

I. 序 論

우리나라의 溫泉觀光地는 1970년대 이후 餘暇資源으로서 그 重要性이 부각되어 民間主導의 開發事業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溫泉觀光地는 각 溫泉의 地域的 性格이 反

映되지 못하고 公共 利用을 위한 餘暇場所의 마련보다 營利追求를 위한 施設의 肥大등 開發計劃의 樹立에 있어서 많은 限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餘暇活動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溫泉觀光地의 開發은 國民의 餘暇生活에 미치는 影響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利用者의 要求에 부응하는 餘暇活動의 場所로 造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利用者의 要求水準에 대한 體系的인 研究가 要求되고 있다.

本 研究는 建設的이고 滿足스러운 餘暇活動을 위한 레크레이션 기회(;장소)의 제공은 중요한 公共의 目的(public purpose)이라는 측면에서 利用者의 要求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開發計劃 및 管理運營 指針을 위한 基礎的 資料의 提供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溫泉觀光地 利用行態의 調査를 통한 이용동기, 관광목적지의 선택, 이용행태 및 이용후 만족도에 대한 일련의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溫泉觀光活動의 特性을 밝히는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그 일부분으로 溫泉觀光地를 利用動機를 究明코자 한 것이다.

本 研究의 結果는 利用者의 欲求(Needs)를 究明함으로써 溫泉觀光地 利用者의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施設(活動)프로그램(activity program) 開發에 기초자료로서 유용할 것이며, 우리나라 溫泉觀光地의 利用實態를 밝히는 중요한 指標로서 溫泉觀光地 開發의 指針이 될 것으로 期待된다.

II. 理論的 背景

전통적으로 餘暇活動에 대한 視點은 自由時間의 利用이라는 측면에서 수행되어 '생산적인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간'의 '비생산적인 활동 추구를 위한 사회행동'이라는 관점에서 餘暇와 勞動과의 관계, 餘暇의 量, 餘暇利用의 意味 등의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다(Smith and Godbey, 1991; 김진섭, 1994).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利用者의 動機, 態度, 滿足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社會心理學的 接近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일찌기, Budge 와 Field(1972)는 옥외 레크레이션 研究에 있어서 質的 研究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社會心理學的 概念, 利用者의 行態特性에 대한 명확한 인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지역적 힘(force)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Mannell(1984)에 따르면 餘暇는

독특하게 개인화된 經驗이나 마음의 상태이며, 우리의 삶에서 餘暇의 量적 측면보다는 質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信念에서 派生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餘暇는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로 정의되며, 인지된 자유(perceived freedom), 통제 의 내적 의미(internal locus of control), 최적각성(optimal arousal), 본질적인 동기(intrinsic motivation) 등의 개념이 강조된다(Smith and Godbey, 1991).

行動科學(Behavioral Science)으로서 餘暇活動의 研究에 있어서 利用動機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왜 特定의 餘暇活動(;관광, 레크레이션 활동)에 參與하고자 하는가'의 의문이다. 즉, 餘暇活動을 통하여 어떤형태의 補償이나 滿足을 追求하는지, 充足하고자 하는 慾求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行動의 이유(why)를 究明하려는 데 있다. 물론 餘暇活動이 복잡하고 상징적인 형태의 행위로 단 한가지의 動機만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McIntosh and Goelder, 1986), 多次元的(multidimensional)으로 構成되는 인간의 내면적 상태로 일반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언어, 동작, 태도 등의 행태를 통하여 관찰할 수 밖에 없는 가설적 구성(hypothetical construct)이라는 것(박근호, 1975; 정양은, 1982)과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데 만족할 만한 動機의 構成은 존재하지 않으며, 같은 慾求나 動機가 같은 行動을 나타내는 단순한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김진섭, 1994)는 점에서 動機研究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動機는 人間의 行動을 支配하는(: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궁극적인 動因(ultimate driving force)으로서 人間의 慾求가 구체화되어 表出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행동이 추구하는 補償이나 滿足의 形態를 검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動機는 그의 행동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동예측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고, 行動을 유발시킨 動機를 理解함으로써 개인의 미래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적어도 예측된 행동과 부합하는 戰略이나 政策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레크레이션활동에 있어서 利用動機의 究明은 利用者의 慾求를 파악하고 利用動機에 근거하여 비슷한 類型끼리 集團化함으

로서 보다 만족할 만한 경험을 주는 計劃과 管理의 指標로 매우 중요하다.

餘暇 또는 옥외 레크레이션활동의 다원성을 인식하고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利用者의 行態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이며(Manning, 1986), 초기의 연구들은 사람들이 왜 옥외 레크레이션활동에 참여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참여에 대한 다양한 動機를 구명하고자 하였다(Bultena and Taves, 1961; Lapage, 1967; Catton, 1969; Shafer and Mietz, 1969). Driver와 Toucher(1970)는 餘暇活動을 '귀속됨으로 부터의 經驗'으로 정의하고 行態의 接近方法을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사람들은 어떤 目的 또는 어떤 欲求의 滿足을 위하여 餘暇活動을 선택하고, 餘暇活動은 그것 스스로 목적이라기 보다는 어떤 목적에 대한 하나의 手段으로 경험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한다'고 하였다(Manning, 1986).

餘暇活動의 動機에 대한 經驗의 研究는 Hollander(1977), Tinsley et al(1977, 1978과 1979), Crandall(1979), Pierce(1980) 등에 의하여 參與動機의 중요성이 검증되고 잠재적 동기를 구명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이후 경험적으로 측정된 餘暇活動의 動機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목록으로 개발되어 Crandall(1980), Beard와 Ragheb(1983), McIntosh와 Goeldner(1986) 등은 척도항목(scale item)을 사용하여 여가의 잠재적 동기를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Dann(1977)은 觀光動機는 일상생활에서 끌고(유인요인, pull; 일정한 지역으로 끌어당기는 觀光地의 特性) 미는(압출요인, push; 利用者가 일고자 하는 이익) 요소사이에 바탕을 둔 것으로 觀光活動은 유인요인과 압출요인의 適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觀光地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 지라도 觀光活動의 실질적인 결정은 利用者의 필요에서 생겨나는 결과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여 동기 요인의 연구는 압출요인(push)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undberg(1971), Crompton(1979) 등도 관광지의 선택행동에 있어서 利用者의 욕구 및 심리적 동기가 관광지의 속성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하였다.

Manning(1986)은 觀光 또는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충족하며, 그러한 動機는 경험적으로 구분되므로 레크레이션 지역은 利用動機에 근거하여 利用者를 비슷한 類型끼리 集團化 함으로서 多樣하고 滿足스러운 經驗을 주도록 計劃과 管理가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利用者가 追求하는 惠澤과 관광지가 提供할 수 있는 惠澤과의 '適合'으로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Goodrich(1977)의 '惠澤追求理論'이나 Rusk(1984)의 '惠澤適合모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動機 研究로 金知賢(1992)은 스키장 이용의 動機는 '유쾌함',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스키기술 향상'의 直接的 動機와 '자연접촉', '사랑하기', '유대관계 증진' 등의 間接的 動機로 설명할 수 있는데, 스키장의 입지(도시근교와 교외 리조트)에 따른 이용동기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盧庚兒와 金裕逸(1994)은 市民農園의 利用動機는 '지적동기', '사회경제적 동기', '심리적 동기', '신체 휴양적 동기'와 '부가적 동기'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溫泉觀光地에 관한 先行研究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동향을 보면, 利用者의 현황/추이와 세력권 조사(金炳文, 1977과 1978), 溫泉觀光地의 형성과정이나 도시화 상태의 조사(金弘雲, 1983; 金相勳, 1985) 등의 敘述의 연구와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聚落形成 및 地域構造 研究(박영철, 1980; 김동희, 1981; 최미숙, 1981; 방운영, 1983; 원학회, 1984; 오수호, 1991), 溫泉水의 化學的 特性 구명(최상근, 1988), 溫泉觀光地의 開發方向을 제시한 提案(design proposal) 研究(최신현, 1988; 조일형, 1990)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利用者의 욕구를 구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韓炳善(1989)은 잠재 利用者로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溫泉觀光地의 선호형태 조사를 통하여 溫泉觀光地의 이용목적은 1) 기본전환, 2) 가족여행, 3) 자연경관 감상, 4) 지명도, 5) 건강목적의 순이라 규정하고, 溫泉觀光地는 독자적인 관광성을 갖기 보다는 자연적, 인문적 자원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관광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

나, 이 研究는 모집단이 실제 이용자가 아니고, 표본이 일정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외국에서의 溫泉觀光地에 관한 研究로 Wightman과 Wall(1985)의 연구는 Rocky산맥(in British Columbia, Canada)에 있는 Radium 溫泉休養地를 대상으로 溫泉地域(聚落)의 發展過程과 利用現況을 미국과 서유럽 지역의 溫泉과 비교, 고찰한 것으로 이용자의 태도나 반응과 관련한 행태적 연구라기 보다 敘述的(descriptive)인 研究이다. 이들은 앞으로의 溫泉休養地 利用은 溫泉水의 治療的 機能(medicinal properties)은 약화되고 自然景觀(景致)의 중요성이 보편적인 특성(매력요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무절제한 개발(radium 溫泉水의 보존문제와 함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溫泉觀光地에 관한 研究는 아직 초보단계라 할 수 있는데 溫泉이 여러학문 분야(地理學, 地球物理學, 觀光學, 造景學, 地域計劃學 등)의 공통 관심사항이고, 동계 레크레이션의 대표적 사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한 研究는 빈약한 실정으로 溫泉觀光地에 대한 經驗的 研究의 축적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本 研究는 우리나라에서의 溫泉觀光地 利用의 動機 構造를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는 利用者의 個人的 特性和 서로 다른 地域的, 環境的 特性을 가지는 利用溫泉과의 關聯性은 어떻게 定義되는가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本 研究에서는 一般的인 餘暇活動의 動機尺度를 使用하였다. 이는 시간적 제약을 극복함과 온천관광지의 이용이 일반적 여가활동의 범주로 설명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III. 研究方法

1. 調查對象地

本 研究는 行態的 接近方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여 사례지역을 조사함으로써 溫泉觀光活動의 特性을 밝히는 實證研究

(empirical study)로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온천관광지의 이용동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調查對象地는 우리나라의 온천지역 현황"을 반영하면서 比較그룹(comparison groups)을 함축성 있게 포함시키는 戰略(matching strategy)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調查對象地의 基本條件으로 연구의 목적상 여가활동의 목적지로 선택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가지는 관광지 또는 휴양지로 인식될 수 있는 온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選定過程은 먼저, 이용되고 있는 29개 온천관광지를 利用形態 및 聚落形態에 따라 高度集積利用型(溫泉觀光都市), 集積利用型(溫泉觀光地), 初步利用型(經由型 溫泉地)으로 구분하고(일본관광협회, 1983; 김상훈, 1985), 각 유형별로 1개소씩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온천관광지의 지역별 분포, 비교지역간 일정거리 유지로 동일 시기 이용 배제, 개발시기 및 이용시설의 차이, 조사활동의 용이성, 조사결과와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水安保溫泉(高度集積利用型), 白岩溫泉(集積利用型), 尺山溫泉(初步利用型)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溫泉觀光地의 概要와 特性은 <表 1>과 같다.

2. 設問調查

設問調查는 1994년 1월 1일 부터 2월 6일 사이 12일 동안에 각 조사대상지 별로 4일씩 표본추출이 용이한 주말(휴일)을 중심으로 평일을 포함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에서 자기기입식(self-adminstration)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원 기입방법을 병행한 面接調查와 郵便調查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지 별로 110부 정도를 標本 目標로 정한 뒤 조사대상지의 각 施設의 利用者 規模를 감안하여 조사지역을 선정(호텔, 여관, 식당, 공중온천탕, 터미널, 기타)하고 利用者 規模에 비례하는 標本의 수를 할당한 후 조사지역의 입구에 조사원을 배치하여 현지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대상지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귀가후 작성, 우송토록 하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척산온천의 경우는 체류시간이 짧아(거처가는 곳) 면접조사의 방법상 어려움이

있어 체류후 귀가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 방법을 주로 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勞動과 餘暇의 區分이 비교적 명확하며 觀光活動과 觀光目的地의 選擇을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 18세이상(성인)의 等時間 목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설문지는 불성실하거나 앞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틀린 설문지(·합정 응답지) 및 觀光

의 ‘거리이동적 개념’(거주지로 부터 16km이상 또는 다른 시도 행정단위를 여행하는 행위)(교통개발연구원, 1988; 한국관광공사, 1988)에 따라 적산온천의 경우 속초시내 거주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이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331부를 채택하였는데, 회수(채택)율은 면접조사 74.8%, 우편조사 25.5% 이다. (表 2)는 설문조사 및 표본 현황이다.

〈表 1〉 조사대상 온천관광지의 개요 및 특성¹⁾

구 분	수 안 보 온 천	백 암 온 천	척 산 온 천	
위 치	충북 증원군 상모면 온천리 일원	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소태리 일원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일원	
개 발 시 기	194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수 온	51-53°C	30-53°C	40-52°C	
수 질	PH	8.3(약 알카리성)	9.43(알카리성)	8.76(알카리성)
	화 학 성 분	염화토류유화수소천	염화토류유화수소천	단 순 천
이 용 형 태	고도직접 이용형	직접 이용형	초보 이용형	
개 발규모(천평)	2,731	53	275	
지 역 성 격	주변 자연/문화 자원 및 관광휴양시설을 배경으로 하는 내륙형 온천관광도시	동해안 관광벨트의 연결중심지로서 온천 숙박관광지	설악산과 동해안관광의 중심지역인 설악산, 속초시에 인접한 경유형 온천지	
년이용객(천명) ²⁾	2,828	2,080	211	
이 용 가 능 시 설	호텔, 여관, 콘도, 상가, 식당, 다방, 스키장, 위탁시설 및 도시생활 시설을 완비	호텔, 여관, 콘도, 상가, 식당, 다방 부대위탁시설(노래방, 카바레, 디스코장등)의 관광시설	호텔(1), 여관(2) 및 부대위탁시설(카바레, 다방)으로 제한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주변 관광시설 이용)	

주1) 한국온천개발연구소, 1993. 12, 온천정보 No. 28:(111-117) 및 기타의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임.

주2) 이용자는 1990년 기준이며,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충청북도, 1992)과 ‘울진종합관광개발계획’(울진군, 1992)에 의하면 수안보와 백암온천의 1990년 이후의 이용자는 정체 내지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表 2〉 설문조사 및 표본 현황

조 사 대 상 지	배 부		회 수 (채 택)			비 고	
	면 접	우 편	계	면 접(%)	우 편(%)		계(%)
수 안 보	144	—	144	115(79.8)	—	115(79.8)	주중14부(회수)포함
백 암	67	191	258	48(71.6)	59(30.9)	107(41.5)	주중43부(회수)포함
척 산	35	385	420	21(60.0)	88(22.9)	109(26.0)	주중 없음
계	246	576	822	184(74.8)	147(25.5)	331(40.3)	주중57부(회수)

1) 199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온천지구 지정은 66개소이며, 이중 37개소는 개발중으로 이용시설이 없는 곳이다.

設問紙는 文獻調査를 통하여 溫泉觀光地의 利用行態 特性의 평가에 필요한 項目을 研究의 目的에 맞추어 變수를 선정하여 設計하였다. 이때, 利用者의 人口統計學的 特性은 名目尺度(Nominal scale)를, 利用動機 變數는 5점의 總和尺度(Likert scale)에 의한 질문을 사용하여 測定하였다.

人口統計學的 特性의 設問은 일반적 個人특성 外에 과거의 온천이용 경험, 개인의 성격, 가구유형 등을 포함하여 10개문항 12개 變수로 구성하였다. 利用動機 設問은 Crandall(1980)이 제시한 餘暇動機의 범주 및 항목과 Beard와 Ragheb(1983), McIntosh와 Goeldner(1986)의 일반적인 觀光動機 항목을 기초로 수정 개발하여, 이용者의 내부적 요인(:지적동기, 신체적 동기, 심리적동기)과 외부적 요인(:지위/신분적 동기, 사회적 동기, 부가적 동기)으로 구분하고 24개 항목의 變수를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收集된 資料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조사된 24개 항목의 動機에 대한 동의수준을 評價하고 이를 調査溫泉別로 差異를 檢定하였다. 다음으로, 因子分析(Factor Analysis)을 통하여 24개의 평가 항목을 기본적인 因子로 축약하여 溫泉觀光地의 利用動機를 究明하고, 인자점수(factor score: 표준(z)점수)를 利用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여 利用者의 인구통계학적 特性에 따른 動機의 有意性을 檢定하였다. 또한, 利用動機에 따라 利用者를 細分化(Target Segmentation)하기 위하여 人자 점수를 利用한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人자 점수의 평균값이 높은 군집을 중심으로 群集을 命名 하여 利用動機에 따른 群集을 설정하고 이용온천 別 利用動機의 유의성을 檢정하였다.

3. 標本(應答者)의 人口統計學的 特性

〈表 3〉은 應答者의 인구통계학적 特性으로 온천관광지 利用者(표本)의 年齡은 31-40세가 39.9%, 41-50세가 22.7%를 차지하여 溫泉觀光活動은 대체적으로 청장년층 以上이 주로 利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應答者의 인구통계학적 特性

구		분		빈도수(%)	
연령	만	18	25 세	45 (13.6)	
		26	30 세	42 (12.6)	
	31	40 세	132 (39.9)		
		41	50 세	75 (22.7)	
	51	세 이 상	36 (10.9)		
계			330		
성별	남	자		257 (77.6)	
	여	자		74 (22.4)	
계			331		
성격	사	고	심	122 (38.0)	
		중	형	102 (32.8)	
	행	동	중	97 (30.2)	
		계	심	321	
직업	전	문	직	23 (7.0)	
		기	직	66 (20.2)	
	관	리	직	39 (11.9)	
		사	무	104 (31.8)	
	생	산	직	25 (7.6)	
		매	생	28 (8.6)	
학	주	부	42 (12.8)		
계			327		
교육수준	고	졸	이	102 (31.0)	
		졸	하	179 (54.6)	
	대	학	(재) 이 상	47 (14.3)	
계			328		
가구소득	100	만	미	43 (13.3)	
	100	-	200	161 (49.7)	
	200	-	300	75 (23.1)	
	300	만	이	45 (13.9)	
계			324		
가구유형	대	가	가	23 (7.8)	
		족	1	72 (24.5)	
	독	가	족	166 (56.5)	
		족	가	33 (11.2)	
계			294		
거주지	서	기	/	올	117 (35.9)
		남	북	인	50 (15.3)
	중	남	/	대	28 (8.6)
		북	/	대	48 (14.7)
	경	남	/	부	41 (12.6)
전		남	북	7 (2.2)	
강	계		35 (10.7)		
계			326		
이전경험	경	험	없	25 (8.1)	
		1	-	5	120 (39.1)
	6	-	10	72 (23.5)	
	11	-	20	51 (16.6)	
	21	회	이	39 (12.7)	
계			307		

주1) 직업의 구분은 김경동과 이은숙(1992: 681-683)의 구분을 따랐으며, 각 범주에 속하는 직업을 나열해 줌으로서 정확히 구분하도록 유도하였다.
 2) 대가족가구: 조부모 + 부모 + 자녀의 2대 이상 가족가구
 핵가족 1: 부모 + 막내 18세 이상의 자녀 성장 가족가구
 핵가족 2: 부모 + 막내 18세 미만의 자녀 미성장 가족가구
 독립가족가구: 독신 또는 무자녀, 노부모 독립가족가구

性別은 전체적으로 남자 77.6%, 여자 22.4%의 분포를 보여 남자의 이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설문조사시 여자의 경우 협조가 낮았음을 감안하면 본 결과가 溫泉觀光地의 利用者의 性別 분포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性格은 思考中心型이 38.0%로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없으며, 職業은 生産/사무직(31.8%), 전문기술직(20.2%), 주부(12.8%)의 순이다.

教育水準은 전체적으로 고졸이자가 31.1%, 대졸(재) 54.6%, 대학원(재)이상이 14.3%로 비교적 고학력자가 비중이 높다.

家口所得은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이 49.7%, 200-300만원 미만이 23.1%로 이들 두집단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家口類型은 전체적으로 溫泉觀光地 利用者는 핵가족 가구의 利用者가 81.0%, 독립가족 가구가 11.2%, 대가족 가구가 7.8% 이다.

조사된 세 지역 溫泉觀光地 利用者의 居住地는 서울 35.9%, 경기/인천 15.3%으로 수도권지역 利用者가 51.2%를, 경북/대구 14.7%, 경남/부산 12.6%의 순이다. 利用溫泉別 利用者의 거주지는 서로다른 분포를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세 조사지역 溫泉은 각각 다른 居住地別 利用者 勢力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20년간의 추이를 先行研究(김병문, 1974와 1976; 김상훈, 1985와 1986)의 결과로 살펴보면 조사온천별로 거주지 구성 비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로 등 접근성의 향상, 여가행태의 변화, 온천관광지의 개발 확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溫泉觀光地는 初期利用 시기에는 隣接地域 居住者의 이용이 많고 施設이 擴充되면서 보다 큰 利用者 勢力圈을 形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IV. 結果 및 考察

1. 溫泉觀光地의 利用動機

일반적인 여가활동 동기의 범주 및 항목으로부터 24개 항목으로 수정 개발하여 5점의 총화척도를 이용하여 동기의 정도(5점일수록 긍정적 반응)를 측정된 결과 <表 4>는 溫泉觀光地의 利用

動機에 대한 評價이다. '가족끼리 휴양'의 사회적 동기가 3.55점으로 가장 높으면서 '신체적 휴식'(3.54점)과 '자연접촉'과 '정신적 휴식'(각 3.38점), '직장업무 해방'(3.35점), '복잡지역 탈피'(3.08점)의 심리적 동기에서 높으면서 측정의 중앙값인 3.0 이상의 높은 利用動機를 나타냈다. 온천관광지의 고유한 치료적 기능인 '질병의 치료' 동기는 1.96점으로 다른 利用動機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여가행태는 가족단위의 이용('가족끼리 휴양' 동기)이 많으며, 溫泉觀光地의 이용은 전통적인 온천수에 의한 치료적 이용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利用動機 수준을 동기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심리적 동기요인은 대부분의 동기항목에서 3.0점 이상의 높은 점수분포를 나타내어 주요 동기임을 알 수 있었다. 신체적 동기요인은 항목별 차이가 커서 '질병의 치료', '건강 유지 회복'의 동기는 낮고, '신체적 휴식' 동기는 높았으며, 지적 동기요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하여 항목별 차이가 적으면서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위/신분적 동기는 전체적으로 동기형태중 가장 낮은 2.0 이하의 수준이며, 사회적 동기중에서 '가족끼리 휴양'은 3.55점으로 전체 溫泉觀光地 利用動機 중 가장 높았다.

利用動機를 이용온천별로 보면 대부분의 動機項目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水安堡溫泉은 '질병/건강', '직장업무 해방'의 동기와 지적 동기, 지위/신분적 동기, 사회적 동기등 전항목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利用動機를 나타냈고, 尺山溫泉은 '신체적 휴식', '자연접촉', '경치 즐기기', '정신적 휴식' 및 부가적 동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白岩溫泉은 '호기심의 충족', '새로운 경험 얻기', '친구 유대 강화'의 동기에서만 비교적 높은 동기의 수준을 나타낼 뿐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Duncan's Test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항목의 동기 중에서는 수안보의 동기 평점이 높았고, 척산과 백암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동기간의 차이뿐 아니라 지역간 차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利用動機가 온천관광지의 입지적 특성과

〈表 4〉 온천관광지의 이용동기 평가

이 용 동 기	전 체 (N=331)	수 안 보 온 천 (N=115)	백 암 온 천 (N=107)	척 산 온 천 (N=109)
신체적 동기				
질병의 치료	1.96(1.07) ^{d)}	2.17 a ⁹⁾	1.61 b	1.90 a
건강 유지 회복	2.64(1.26)	2.95 a	2.13 b	2.81 a
신체적 휴식	3.54(1.15)	3.60 ab	3.30 a	3.72 b
심리적 동기				
자연 접하기	3.38(1.27)	3.36 ab	3.16 a	3.63 b
경치 즐기기	3.14(1.22)	3.08 a	2.91 a	3.43 b
혼자 조용한 시간	2.29(1.26)	2.31 a	2.17 a	2.39 a
복잡지역 탈피	3.08(1.28)	3.10 a	2.89 a	3.23 a
정신적 휴식	3.38(1.25)	3.44 ab	3.15 a	3.55 b
일상 책임감 도피	2.61(1.32)	2.81 a	2.42 b	2.58 ab
직장업무 해방	3.35(1.39)	3.67 a	2.89 b	3.46 a
지적 동기				
견문 넓히기	2.40(1.12)	2.74 a	2.03 b	2.39 c
호기심의 충족	1.83(.95)	2.00 a	1.77 ab	1.70 b
새로운 경험 얻기	2.22(1.16)	2.53 a	2.08 b	2.01 b
창의적 생각 얻기	2.35(1.20)	2.56 a	2.13 b	2.36 ab
자기 자신을 배우기	2.38(1.14)	2.56 a	2.23 b	2.33 ab
지위/신분적 동기				
기념일 여행	1.86(1.24)	2.02 a	1.65 b	1.89 ab
보내준 효도관광	1.63(1.02)	1.62 a	1.33 b	1.63 a
사회적 지위향상	1.51(.86)	1.83 a	1.36 b	1.31 b
자랑하기 위하여	1.23(.61)	1.44 a	1.14 b	1.09 b
사회적 동기				
친구 유대 강화	2.73(1.50)	3.21 a	2.48 b	2.46 b
가족끼리 휴양	3.55(1.41)	3.87 a	3.00 b	3.74 a
직장모임 유대강화	2.56(1.16)	2.93 a	2.35 b	2.38 b
사업상 목적	1.87(1.16)	2.12 a	1.74 b	1.72 b
부가적 동기				
경유 온천욕	2.06(1.23)	2.14 a	1.65 b	2.38 a

주1) 5점의 총화척도를 사용하여 이용동기에 대한 '동의를 정도'(5점일수록 동의)를 평가한 평균값이며, ()는 표준편차임.

2) 조사 온천별 평균값의 차이를 유의수준 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한 것으로, 같은 글씨이면 차이가 없음을 나타냄.

이용 가능시설, 환경적 상황을 반영하여 목적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白岩溫泉의 利用動機 特性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것은 온천취락의 발전형태가

도시적이지도 자연적이지도 않은 중간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응답자(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이용 연령층이 다소 높았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향후 보다

〈表 5〉 이용동기 인자분석 : Rotated Factor Matrix¹⁾

변 수	FACTOR	FACTOR	FACTOR	FACTOR	FACTOR	FACTOR	FACTOR	FACTOR
	1	2	3	4	5	6	7	8
새로운 경험얻기	.869	.045	.037	.040	.031	.044	.042	.042
호기심의 충족	.764	.039	-.079	.124	.165	.044	-.064	.257
견문 넓히기	.598	.038	.373	.048	.100	.193	.098	.178
자신을 배우기	.567	.216	.274	.151	-.148	-.020	.192	-.350
창의적 생각얻기	.551	.240	.336	.125	-.058	.012	.187	-.371
생활책임감 도피	.060	.740	-.027	.022	.134	.101	-.107	.051
조용한 시간	.107	.717	.106	.277	-.213	-.031	.042	.031
정신적 휴식	.068	.623	.282	-.122	.071	-.099	.321	.071
복잡지역 벗어남	-.100	.613	.433	.042	-.001	.002	.035	.164
직장업무 해방	.193	.580	.106	.144	.211	.070	.151	-.183
자연접하기	.090	.187	.843	.051	.023	.018	.080	-.028
경치 즐기기	.190	.158	.788	.034	.149	.052	.068	.044
효도관광	-.030	-.101	.025	.710	.127	.110	.157	-.201
사랑하기 위해	.201	.112	.051	.672	.104	.224	-.246	-.073
사회적 지위향상	.159	.114	-.041	.626	.409	.108	.087	-.149
직장/모임 유대강화	.019	.036	.070	.130	.802	.026	-.033	-.029
친구 유대강화	.051	.014	.194	.052	.665	.051	-.068	.169
사업상 목적	.077	.096	-.216	.373	.600	.120	.201	-.166
질병의 치료	.040	.046	-.005	.204	.004	.870	.020	.018
건강 유지 회복	.124	.029	.086	.082	.038	.815	.288	.031
가족끼리 휴양	.034	.026	.091	.067	.030	.204	.709	.028
신체적 휴식	.086	.428	.059	-.052	-.062	.127	.565	-.013
기념일 여행	.148	-.042	.063	.535	-.006	-.055	.537	.183
경유 온천욕	.188	.138	.086	.093	.002	.044	.123	.722

주1) 인자분석은 Varimax로 함.

발전된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 5〉는 溫泉觀光地 利用動機로 측정된 24개 항목의 변수를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통하여 직각회전의 Varimax방법으로 因子分析한 것이며, 〈表 6〉은 그 결과로서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8개의 因子를 溫泉觀光地의 利用動機 要因으로 추출한 것이다. 추출된 8개의 요인들은 온천관광지 이용동기의 64.7%를 설명하는 분산량을 나타냈다.

〈表 6〉 이용동기 요인추출 : Factor Analysis

구 분	요인의설명	Eigen value	Pct. of Var	Cum Pct.
Factor 1	지적욕구 추구	4.97	20.7	20.7
Factor 2	일상 도피	2.64	11.0	31.7
Factor 3	자연접촉	1.77	7.4	39.1
Factor 4	지위 과시	1.64	6.9	46.0
Factor 5	사회적 유대	1.28	5.3	51.3
Factor 6	건강	1.13	4.7	56.0
Factor 7	가족 휴양	1.07	4.4	60.4
Factor 8	경유 이용	1.01	4.2	64.7

인자분석에서 얻어진 요인의 그룹화된 범주는 Beard와 Ragheb(1983), McIntosh와 Goeldner (1986)의 구분을 토대로 한 <表 4>의 동기 범주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온천관광지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여가활동의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리적 동기는 일상도피와 자연접촉 동기로 양분되고 사회적 동기는 가족휴양과 친구/직장 유대강화로 구분되었다.

因子分析의 결과에서 온천이용의 직접효과라 할 수 있는 '질병/건강'(요인 6)이나 '온천욕'(요인 8)의 설명하는 분산은 9.5%로 溫泉觀光地 이용의 直接的 動機는 아니라는 것은 Wightman과 Wall(1985)이 주장한 바와 같이 溫泉觀光地의 이용에서 치료적 기능(medicinal properties)이 약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표 4>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가족끼리 휴양', '신체적 휴식', '정신적 휴식' 및 '자연 접촉'의 추상적 표현은 '새로운 경험 얻기'나 '호기심의 충족'의 '지적욕구 추구' 또는 '생활 책임감 도피'나 '조용한 시간 갖기'의 '일상도피'라는 구체적인 목적적 의미(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溫泉觀光地의 計劃과 管理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의미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2. 人口統計學的 特性에 따른 利用動機의 差異

<表 7>은 8개의 溫泉觀光地 利用動機(因子: factor)를 9개 利用者 特性의 範疇(category)별로 중심값(centroid) 차이 검정의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利用者의 年齡, 性別, 職業, 家口所得, 居住地 및 以前 溫泉利用 經驗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性格, 教育水準, 家口類型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의 특성이 관광동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한 McIntosh (1977)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치하는 결과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이용동기의 차이는 없었다.

<表 8>은 因子分析에서 선정된 8개의 利用動機를 종속변수로 하고 利用者 特性의 범주(catego-

<表 7>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동기의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구분	Approx. F	Hypoth. DF	Sig. of F
연령	3.37	32.0	.000
성별	2.07	8.0	.038
성격	1.28	16.0	.205
직업	2.59	48.0	.000
교육수준	1.45	16.0	.111
가구소득	1.72	24.0	.017
가구유형	1.36	24.0	.115
거주지	2.52	24.0	.000
온천이용경험	2.42	32.0	.000

주1) Hotelling's Trace Test 값으로 $T = \sum_{i=1}^s \lambda_i$ 으로 계산되

며, SPSS/PC+ 통계프로그램은 Pillai's Trace, Hotelling's Trace, Wilks' Lambda 및 Roy's Largest Root의 네개의 검정통계량을 산출해 주지만 MANOVA에서는 Hotelling's Test 값을 주로 사용한다.

ry)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분산분석한 결과로 <表 7>의 利用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利用動機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화한 일변량 F-검정이다. 이는 利用者의 인구통계적 범주별 차이가 종속변수들 중에서 어느 변수에 의한 것인지를 검정한 것이다.

<表 8>에서 利用者의 年齡에 따라서 '지적욕구 추구', '자연접촉', '가족휴양'의 動機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낮은 연령층일수록 '지적욕구 추구'의 動機가 높고, 높은 연령층일수록 '자연접촉', '가족휴양'의 動機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性別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가족휴양', 여자의 경우 '건강'의 動機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職業은 利用動機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욕구 추구', '자연접촉', '건강', '가족휴양', '경유 이용'의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지적욕구 추구'동기는 학생, 주부에게서 높고, '자연접촉' 동기는 전문직, 주부, '건강' 동기는 주부, '가족휴양' 동기는 관리직 회사원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8)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동기의 차이: MANOVA

	이용자 특성	지적욕구 추구	일상도피	자연접촉	지위과시	사회적유대	건강	가족휴양	경유이용
연령	18 - 25 세	.737 ¹⁾	-.083	-.268	-.032	-.087	-.175	-.523	.228
	26 - 30 세	.106	.144	-.232	.061	.194	.114	-.029	.170
	31 - 40 세	-.029	-.011	.010	-.060	-.108	.059	.103	.013
	41 - 50 세	-.390	-.315	.280	.143	.303	-.305	-.406	-.032
	50 세 이상	-.243	.158	.138	.026	.006	.054	.346	-.237
	F-value	9.68	1.68	2.48	.36	1.71	1.51	7.72	1.97
P-value	.000	.155	.044	.836	.147	.198	.000	.099	
성별	남자	-.035	.021	-.024	-.011	.031	-.067	.059	-.052
	여자	.122	-.074	.085	.037	-.107	.232	-.206	.181
	F-value	1.42	.52	.68	.13	1.09	5.20	4.07	3.15
P-value	.235	.470	.410	.715	.297	.023	.044	0.77	
직업	전문직	-.393	.097	.624	-.281	-.181	-.110	-.271	.229
	전문기술직	.042	-.096	-.046	-.261	.194	-.215	.015	.056
	관리직	-.049	.357	-.041	.100	-.052	-.030	.402	-.501
	생산사무직	-.199	-.010	-.152	.061	.010	.026	.093	.006
	판매직	.037	.138	.121	.299	.142	.077	-.192	-.142
	학생	.694	-.149	-.220	.082	-.214	-.298	-.475	.195
	주부	.130	-.203	.232	.002	-.152	.420	-.008	.149
	F-value	3.90	1.44	2.66	1.61	1.01	2.31	2.75	2.33
P-value	.001	.198	.016	.145	.418	.034	.013	.032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273	-.042	-.212	.150	.256	.051	-.281	-.113
	-199 만 원	.085	-.029	-.075	.050	.047	-.023	.112	.068
	-299 만 원	.061	-.080	.172	-.172	-.033	-.028	.035	-.186
	300만원 이상	.143	.248	.127	-.158	-.336	.036	-.201	.172
	F-value	1.85	1.18	1.96	1.60	2.79	.10	2.50	1.74
P-value	.139	.317	.120	.190	.041	.958	.059	.160	
거주지	대도시	.020	.114	.214	-.004	-.205	-.071	.119	.189
	중도시	.057	-.004	.038	-.375	.344	-.200	-.097	-.107
	도지역 1	-.189	-.090	-.234	.159	.096	.240	.028	-.130
	도지역 2	.168	-.101	.007	-.054	.035	-.121	-.181	-.056
	F-value	1.92	1.00	3.74	2.95	3.59	3.09	1.46	2.21
P-value	.127	.391	.011	.033	.014	.027	.227	.086	
은천이용경험	경험없음	.662	-.401	-.618	.226	-.153	-.044	-.336	.185
	1 - 5 회	.002	-.128	-.076	.061	.150	-.044	-.022	.047
	6 - 10 회	-.130	-.041	.234	-.159	.028	-.034	.038	-.066
	11 - 20 회	.095	.345	.356	-.115	.003	.087	.034	-.042
	21 회 이상	-.352	.263	-.049	.100	-.250	.310	.170	-.195
	F-value	4.59	3.78	5.71	1.14	1.40	1.09	1.07	.73
P-value	.001	.005	.000	.329	.233	.364	.371	.575	

주1) 인자점수(factor score)의 평균값 임.

2) 특별시 거주자는 '대도시'로, '직할시' 거주자는 '중도시'로, 조사 은천(수안보, 백암, 척산)이 소재한 도지역은 '도지역 1', 기타의 도지역은 '도지역 2'로 군집화하여 재분류 함.

家口所得은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유대' 동기가 높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뿐 다른 동기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居住地에 따라서는 비교적 利用動機의 차이를 나타내어 대도시(특별시), 중도시(직할시) 거주자는 '자연접촉'의 동기가 높고, 조사온천 소재 도 지역 거주자는 '지위 과시', '건강'의 동기가 높으나 '자연접촉' 동기는 가장 낮았다. '사회적 유대' 동기는 '특별시' 거주자에게서는 낮으나 '직할시' 거주자에게서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 溫泉觀光地 利用經驗에 따라 '지적욕구 추구', '일상도피', '자연접촉'의 동기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이전의 經驗이 餘暇活動의 動機를 決定하는 중요한 要因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전의 온천이용 경험이 없을 때는 '지적욕구 추구'의 동기가 높으나 이후 경험이 많아 질수록 낮아지며, 반대로 '일상도피'의 동기는 이전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연접촉'의 동기는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6-20회'의 경험자에게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利用動機는 利用者の 인구통계학적 特性에 따라 利用動機의 構造가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로 다른 特性을 가지는 利用者 즉, 利用者の 年齡, 性別, 職業, 家口所得, 居住地, 以前經驗에 따라 利用動機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利用動機에 의한 利用者 群集化

利用動機에 의한 利用者の 群集化는 溫泉觀光地의 利用動機에 따라 몇개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 또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利用者를 세분화하는 과정이다. 이는 레크레이션 지역은 利用動機에 따라 비슷한 群集끼리 집단화 함으로서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계획과 관리가 가능하다(Manning, 1986)는 관점에서 추구하는 '혜택'(benefit: Goodrich, 1977; Rusk, 1984)에 따라 利用者를 세분화(Benefit Segmentation)하여 이를 토대로 표적시장을 세분화(Target Segmentation)하기 위함이다. 群集化 作業

은 因子分析에서 추출된 8개의 動機要因의 인자 점수(factor score)를 利用하였다.

群集의 수는 群集分析(Cluster Analysis: 集落分析)을 통하여 3-6개의 群集으로 구분한 후 Pseudo F. Statistics를 이용한 판별분석의 결과 구분력이 가장 높은 5개군집의 利用動機 群集을 채택하였다. 이는 군집분석이 다른 분석방법과는 달리 최종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요인분석이나 판별분석 등은 자료의 분산 즉, 변수들간의 상관관계(interdependence)를 이용하여 유사한 집단을 분류하지만 군집분석은 단지 측정치의 차이를 이용(특성자료가 얼마나 비슷한 값을 가지는가를 수학적 거리로 환산하여 거리가 가까운 대상을 동일한 집단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군집분석에서 유사성의 측정은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 군집방법(method)은 WARD방법을 이용하였다. <表 9>는 인자점수(factor score)를 가지고 8개의 動機要因을 5개의 群集別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溫泉觀光地의 移用動機에 따라 移用者를 群集化 및 群集을 命名한 것이다.

그 결과 溫泉觀光地 利用者는 利用動機에 따라 5개 群集으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집단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溫泉觀光活動 動機도 특정의 動機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動機가 복합되는 多次元的 構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동기 군집별로 보면 '사회적 유대', '지적욕구 추구'를 주요동기로 하는 '사회적 유대 동기형'(군집2)이 전체의 29.0%로 가장 큰 동기 집단이며, '신체적 건강', '경유 이용' 동기의 '건강 동기형'(군집3)이 25.4%를, '자연접촉', '가족휴양', '일상도피'를 주요 동기로 하고 부가적으로 '지적욕구 추구'를 추구하는 '자연접촉 동기형'(군집1)이 22.4%로 이들 3개의 動機群集(동기형)이 7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群集 4는 '지위/과시' 동기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기타의 利用動機를 가장 복합적으로 가지는 집단으로 '지위과시 동기형'(13.0%), 群集 5는 기타의 利用動機를 가지는 '기타 동기형'(10.2%)의 利用者 집단이다.

<表 9> 이용동기에 의한 이용자 군집화 및 명명 : Cluster Analysis

이 용 동 기	Cluster1 (N=74)	Cluster2 (N=96)	Cluster3 (N=84)	Cluster4 (N=43)	Cluster5 (N=34)	F-Value (Tot N=331)
지 적 욕 구 추 구	.243 ^{a)}	.288	-.142	-.152	-.798	10.20
일 상 도 피	.302	-.299	.256	.027	-.480	7.76
자 연 접 촉	.579	.037	-.235	.233	-1.079	22.54
지 위 과 시	-.403	-.325	-.294	1.877	.148	99.74
사 회 적 유 대	-.222	.811	-.646	.362	-.668	48.14
건 강	.088	-.381	.672	.139	-.953	27.88
가 족 휴 양	.411	-.230	-.105	.142	-.165	5.35
경 유 이 용	-.812	.223	.475	.155	-.231	24.13
군 집 의 명 명	자연접촉 동기형	사 회 적 유 대 동기형	건 강 동기형	지위과시 동기형	기 타 동기형	

주1) 인자점수(factor score)의 평균값 임.

4. 利用溫泉別 利用動機

<表 10>은 因子分析에서 추출된 8개의 溫泉觀光地 利用動機 因子를 인자점수(Factor score)를 이용하여 이용온천별로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s)한 결과로서 ‘일상도피’, ‘지위과시’ 동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기에서 지역(이용온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이용온천별로 보면 水安堡溫泉은 ‘지적욕구추구’, ‘지위과시’의 利用動機가 높고, 尺山溫泉은 ‘자연접촉’, ‘가족휴양’, ‘경유이용’의 利用動機가 높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白岩溫泉은 ‘건강’, ‘가족휴양’의 動機가 크게 낮으면서 지배적인 동기요인보다는 多複合 動機에 의한 利用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水安堡溫泉과 尺山溫泉의 중간적 형태로서 利用動機에 따라 水安堡 또는 尺山溫泉과 가까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利用動機의 評價 <表 4>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動機群集과 利用溫泉을 교차분석(Crosstabulation)한 결과 <表 11>에서 이용온천별 動機要因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동기유형별로 보면 ‘자연접촉 동기형’(N=74, 22.4%)은 尺山溫泉(43.2%), 水安堡

나타나 白岩溫泉의 이용이 다복합 동기의 이용임을 나타냈다. 이는 利用動機 評價(表 4)에서 白岩溫泉이 대부분 낮은 점수의 동기를 보일뿐 특징적 동기가 약한것을 보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動機에 따른 온천관광지 利用(選擇)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목적지의 선택은 溫泉觀光地가 가지는 환경적 特性과 이용동기의 적합으로 이루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온천관광지가 가지는 제특성에 따라 적합한 動機 利用者를 標的市場(Target Market)으로 선정함으로써 차별화(:specialized)된 성격의 溫泉觀光地의 造成과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용동기가 특정의 동기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동기와 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표적시장의 선정은 어떤 유형의 동기자를 주요 溫泉(35.1%)의 순으로 이용이 높고, ‘사회적 유대 동기형’(N=96, 29.0%)은 白岩溫泉(40.6%)과 水安堡溫泉(39.6%)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용이 높았으며, ‘지위과시 동기형’(N=43, 13.0%)은 水安堡溫泉(41.9%), 尺山溫泉(34.9%)의 순으로 이용이 높으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건강 동기형’은 차이가 크게 없으며, ‘기타 동기형’(N=34, 10.2%)은 白岩溫泉(58.8%)에서 특징적으로

(表 10) 이용온천별 이용동기의 차이¹⁾: MANOVA

이용 동 기	수안보온천 (N=115)	백 암 온 천 (N=107)	척 산 온 천 (N=109)	Univariate F-Value	F-tests P-value
지적욕구추구	.266 ²⁾	-.110	-.173	6.57	.002
일 상 도 피	.085	-.143	.051	1.65	.195
자 연 접 촉	-.072	-.158	.231	4.64	.010
지 위 과 시	.152	-.046	-.115	2.19	.114
사 회 적 유 대	.325	-.165	-.181	9.81	.000
건 강	.244	-.328	.065	9.92	.000
가 족 휴 양	.063	-.298	.226	8.09	.000
경 유 이 용	-.044	-.176	.219	4.48	.012

주1) Hotelling's Trace Test 값 임.

Approx. F = 6.44 Hypoth. DF = 16 Sig. of F = .0000

2) 인자점수(factor score)의 평균값 임.

(表 11) 이용동기 군집별 이용온천 비교: Crosstabulation

이용온천	자연접촉 동 기 형 (N=74)	사 회 적 유 대 동 기 형 (N=96)	건 강 경유이용 동 기 형 (N=84)	지위과시 동 기 형 (N=43)	기 타 동 기 형 (N=34)	Total (N=331)
수 안 보	26 (35.1)	38 (39.6)	29 (34.5)	18 (41.9)	4 (11.8)	115
백 암	16 (21.6)	39 (40.6)	22 (26.2)	10 (23.3)	20 (58.8)	107
척 산	32 (43.2)	19 (19.8)	33 (39.3)	15 (34.9)	10 (29.4)	109

$\chi^2 = 29.20$ D.F. = 8 Sig. = .0003

표적으로 할 것인가하는 상대적 우위의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利用者의 要求에 부응하는 溫泉觀光地의 造成이라는 문제의 인식에서 利用者의 이용행태와 반응을 토대로 溫泉觀光活動을 특성을 밝히고자 한 행태적 접근의 일부분으로 利用者의 이용동기에 관한 것이며, 연구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溫泉觀光地의 利用動機를 측정된 결과 '가족끼리 휴양', '신체적 휴식', '자연접촉', '정신적 휴식', '직장업무 해방' 및 '복잡지역 탈피'의 항목에서 높은(3.0점 이상) 점수의 利用動機로 나타났다. 인자분석의 결과 溫泉觀光地의 利用動機는 8개의

인자군에 의하여 64.7%를 설명할 수 있는데, 새로운 경험 얻기, 호기심의 충족 등의 '지적욕구추구' 동기가 가장 높고 '일상도피', '자연접촉', '지위과시', '사회적 유대', '건강', '가족휴양', '경유이용'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溫泉觀光地의 기본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온천수의 치료적 기능(medicinal properties)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온천관광활동의 동기는 심리적 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因子分析에서 추출된 8개의 利用動機는 利用者의 年齡, 性別, 職業, 家口所得, 居住地 및 以前의 온천이용 經驗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利用者는 서로 다른 利用動機를 가지고 溫泉觀光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溫泉觀光地의 利用者는 여러가지의 복합적 동기를 가지는데 비슷한 이용동기 패턴을 가지는 利用者를 소수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

용자(소비자) 중심의 관리정책을 標的集團(Target group)별로 세울 수 있는 관점에서 群集分析의 통계기법을 사용한 결과 利用動機에 따라 5개의 群集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었다. '사회적 유대 동기형', '건강/경유이용 동기형', '자연접촉 동기형'의 순으로 많으며, 이들 3개의 동기군집(유형)이 전체 이용자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온천은 대체로 利用動機에서 差異가 있어서 서로 다른 溫泉觀光地는 서로 다른 동기(자)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었다. 水安堡溫泉은 '저적육구 추구', '사회적 유대', '건강'의 동기, 尺山溫泉은 '자연접촉', '가족휴양' 및 '경유이용'의 동기가 높았으나, 白岩溫泉은 특정의 利用動機에 의한 설명은 곤란하였다. 이는 특정의 온천관광지는 이용동기와 관광지의 속성과의 적합으로 목적지로 선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온천관광지의 제특성에 의한 표적시장의 선정으로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로 부터 사회현상으로서 여가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여가공간(관광지)의 유인(pull)요인으로서 매력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내부적 압출(push)과의 관련성 속에서 목적지의 선택 과정을 포함하여 상황(context)을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맥락적인 접근과 이해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천관광지의 이용동기를 구명한 본 연구는 온천관광활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하나로 의의가 있으나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參 考 文 獻

1. 交通開發研究院(1988) 「觀光 長期需要 豫測에 關한 研究」.
2. 金璟東, 李溫竹(1992) 「社會調查研究方法」, 서울: 박영사: 104-150, 681-683.
3. 金炳文(1977) "白岩 溫泉觀光地의 地域分析과 開發", 「관광학(한국관광학회지)」, 1:2-10.
4. _____ (1978) "水安堡 溫泉觀光地의 勢力圈에 關한 地域的 研究", 「관광학(한국관광학회지)」, 2:25-35.
5. 金相勳(1987) "韓國 溫泉 觀光地에 關한 研究", 「경희

- 대학교 부설 국토종합개발연구소 지역개발 논문집, 14:20-40.
6. _____ (1985) 「韓國 溫泉觀光地의 形成過程과 機能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金永善(1989) 「國內觀光者의 觀光動機 類型別 行動特性에 關한 實證的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金知賢(1992) 「스키장 利用者의 動機와 滿足度에 關한 研究; 도시근교형과 리조트형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진섭(1994) 「관광학원론」, 서울: 대왕사: 51-97.
10. 盧庚兒, 李震熙, 金裕逸(1994) "市民農園의 利用動機와 滿足度에 關한 調査",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생명자원과학연구」 1(1): 39-48.
11. 日本觀光協會(1983) 「觀光計劃手法」: 151-153.
12. 박근호(1975) "관광동기 및 관광유인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집」, 6: 101-121.
13. 울진군(1992) 「울진군 관광종합 개발계획(보고서)」: 123-142.
14. 정양은(1982) 「심리학통론」, 서울: 법문사: 217-220.
15. 충청북도(1992) 「충청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충주호권, 보고서)」: 184-193.
16. 한국관광공사(1988) 「전국민여행동태조사」.
17. 한국온천개발연구소(1993. 12), 「온천정보」, 28: 111-117.
18. 韓炳善(1989) 「溫泉觀光地에 對한 選好行態와 類型分類에 關한 研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Beard, J. G. and M. G. Ragheb (1983)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3):219-228.
20. Burdge, R. and D. R. Field (1972) "Methodological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outdoor recre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63-72.
21. Crandall, R.(1979) "Social interaction, affect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165-181.
22. Crandall, R.(1980) "Motivations for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45-54.
23. Crompton, J. L.(1979) "Motivation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408-424.
24. Dann, G. M. S.(1977) "Anomie, ego-enhancement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4(3):184-194.
25. Hollander, J.(1977) "Motivational dimensions of the camping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2): 133-141.

26. Lundberg, D. E.(1971) "Why Tourists Travel", *The Cornell Hotel and Restaurant Administration Quarterly*, 11:75-81.
27. Mannell, R. C.(1984) "A psychology for leisure research", *Leisure and society*, 7:13-21.
28. Manning, R. E.(1986) *Studies in outdoor recre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1-95.
29. McIntosh, R. W. and C. R. Goeldner (1986) *Tourism principle, practice, philosophies*, 5th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Inc.:61-35, 123-143.
30. Pierce, R. C.(1980) "Dimensions of leisure 3;characteristic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3):273-284.
31. Smith, S.L.J. and G. C. Godbey, (1991) "Leisure, recreation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8:85-100.
32. Tinsley, H. E. A., T. Barrett, and R. A. Kass (1977) "Leisure activity and need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4):110-120.
33. Tinsley, H. E. A. and R. A. Kass (1978) "Leisure activity and need satisf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0:191-202.
34. Tinsley, H. E. A. and R. A. Kass (1979) "The latent structure of need satisfying properties of leisure activ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4):278-291.
35. Wightman, D. and G. Wall (1985) "The spa experience at radium hot spring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2: 393-416.